

한여름 배구축제 13일 '팡파르'

순천·도드람컵 프로배구, 28일까지... 3년 만에 유관중 진행

15개팀 출전 자용 거둬... 여자부 13~20일·남자부 21~28일

김연경 소속팀 흥국생명, 대회 첫 날 IBK기업은행과 개막전

한여름의 배구 축제인 2022 순천·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가 13일부터 28일(여자부 8월13일~20일, 남자부 8월21일~28일)까지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린다.

3년 만의 순천으로 돌아온 컵대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후 처음으로 관중이 들어찬 가운데 진행된다.

V-리그 남자부 14개팀에 남자부 국군체육부대(상무)가 가세해 총 15개팀이 자용을 겨룬다.

남자부는 우리카드, 한국전력, 현대캐피탈, KB손해보험이 속한 A조와 OK금융그룹, 대한항공 국군체육부대, 삼성화재의 B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다.

여자부는 A조의 흥국생명, IBK기업은행, GS칼텍스와 B조 페퍼저축은행, 한국도로공사, 현대건설, KGC인삼공사가 순위 경쟁을 벌인다.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흥국생명으로 돌아온 김연경이다.

중국 생활을 접고 흥국생명 복귀를 택한 김연경은 V-리그 개막에 앞서 이번 대회를 통해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현재 김연경은 새로운 동료들과 부지런히 호흡을 맞추며 팬들 앞에 다시 실 승감을 준비하고 있다.

김연경이 속한 흥국생명은 대회 첫 날 오후 1시20분 IBK기업은행과 개막전을 갖는다.

트레이드를 통해 유니폼을 갈아입은 선수들도 입단 신고식을 치른다.

남자부 삼성화재에서 우리카드로 이적한 황승빈과 우리카드에서 삼성화재 유니폼을 입게

된 하현용, 여자부 한국도로공사에서 페퍼저축은행 세터가 된 이고은 등이 출격을 앞두고 있다.

남자부 한국전력 권영민 감독, 여자부 KGC인삼공사 고희진 감독, 흥국생명 권순찬 감독, 삼성화재 김상우 감독에 이번 대회는 새 팀 데뷔전이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대회의 컨셉을 'V-FESTA'로 잡았다. 'V-FESTA'는 배구(VOLLEYBALL)와 축제(FESTIVAL)를 합친 단어로, 팬들이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기장 밖에는 컵대회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과 시원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야외 Pub 컨셉의 푸드존이 설치된다.

토스로 과녁에 공 집어넣기, 스파이크로 과녁 맞추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구를 체험할 수 있는 플레이존도 꾸려진다.

장내에서는 팬들이 직접 참여해 1점 배구 경기를 펼치는 팀 대항 단체 코트 이벤트를 비롯해 북북북 경품 추첨 이벤트 등 유쾌한 이벤트가 마련된다.

티켓은 여자부 10일, 남자부 18일 오후 2시부터 KOVO 통합티켓 예매처를 통해 구매 가능하다. 순천 팔마체육관 매표소에서도 매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현장 판매를 실시한다.

컵대회 굿즈 세트와 경기 종료 후 추첨을 통해 수훈 선수의 친필 사인볼을 증정하는 패키지 티켓 상품은 9일(여자부)과 17일(남자부) 오후 3시 선착순으로 판매된다. /뉴스

도체육회, 또박기 체육돌봄 추진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는 또박기 체육돌봄 사업에 선정, 지난날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이 사업은 체육시설이 열악해 평소 체육활동을 접하지 못하는 도내 다문화 가정 유·청소년에게 운동 참여 기회를 제공해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전북체육회는 약 5800만원의 국비를 확보, 완주지역 다문화가정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수업은 주말에 이뤄지고 있으며, 빙상과 스쿼시 종목으로 나눠 각각 20명씩이다.

오는 11월까지 총 20주에 걸쳐 종목(빙상·스쿼시) 체험 및 강습을 진행 할 계획이다.

정강선 회장은 "유아 및 청소년기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누구나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체육으로 행복한 전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진안군청 유동주 선수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 평택시에서 열리는 2022 한국실업역도연맹회장배역도경기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유동주, 실업역도대회 '3관왕'

인상 1위·용상 1위... 합계 1위 차지

하반기 개최 세계선수권 대비 훈련 매진

진안군청 유동주 선수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 평택시에서 열리는 2022 한국실업역도연맹회장배역도경기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유동주 선수는 인상(161kg) 1위, 용상(198kg) 1위, 합계(354kg) 1위를 차지하며 89kg급 3관왕의 주인공이 됐다.

특히 본 대회에서 2020년부터 3년 간 3관왕을 차지하는 등 89kg급 1위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유 선수는 진안군 역도 간판선수로 2015년 청단과 더불어 입단했으며 타고난 기량과 꾸준한 훈련으로 국가대표로 발탁돼 지난 2020도쿄올림픽에서 96kg급 8위를 하는

등 국내·외에서 진안군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다.

이제 하반기 열린 전국체전, 세계선수권 등을 앞두고 있어 훈련에 매진할 예정이다.

또한 진안군청 역도팀 소속 최행남 선수(81kg)도 인상(141kg) 2위, 합계(312kg) 3위를 차지해 진안군의 위상을 높였다.

전춘성 군수는 "더운 날씨에 고된 훈련이 힘들텐데 좋은 결과로 진안군을 빛내줘 감사하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원을 통해 우리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는 미래 소프트테니스 육성을 위해 2022 꿈나무 하계합숙훈련을 전북 순창에서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래 국가대표 꿈꾸는 꿈나무들, 순창서 집결

소프트테니스협회, 순창서 13일까지 초·중등부 하계합숙훈련

국가대표 원포인트 레슨·인성교육·체험 프로그램 등 진행

올해 전담관리요원 추가 배치로 코로나19 방역·안전에 역점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회장 정인선)는 미래 소프트테니스 육성을 위해 2022 꿈나무 하계합숙훈련을 전북 순창에서 8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실시한다.

훈련지도자 6명, 전담관리요원 2명과 전국 150여개 초·중등부 팀 중에서 18개 학교에서 선발된 남녀 초·중등부 각 12명, 남녀 중등부 각 6명 등 총 44명이 참가한다.

미래 국가대표를 꿈꾸는 38명의 꿈나무 선수들은 10일간 기초체력훈련, 포지션별 훈련, 심리교육, 체력·체력측정평가와 대한체육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캠프에 참여하게 된다.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는 6년간 본 훈련을 직접 운영하면서 새로운 아이템과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훈련의 질을 높이고 있다.

국가대표 영상을 통한 기술, 국가대표와 함께하는 원포인트 레슨, 즐기 게임 이벤트, 야외체력 캠프, 한자 및 영어교육, 중국어 교육, 인성교육 등 훈련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2017년부터 소프트테니스 꿈나무육성을 진행하고 있으나 2020년과 2021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훈련 대신에 비대면 영상훈련을 진행해 왔다. 올해에는 전담관리요원 남녀 각 1

명을 추가로 배치해 코로나19 방역과 안전에 역점을 두어 진행하게 됐다.

본 행사 사전 준비를 위하여 지도자 6명과 지난 7월 20일에 1차 회의를 진행하였고 8월 3일 현장점검 및 안전점검을 전담관리요원과 훈련지도자와 함께 진행했다.

또한 안전한 훈련을 위하여 외부인 접촉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진단키트 검사를 10일 훈련 기간 동안 7회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순창군(군수 최영일)과 전북협회(회장 박경민)의 도움으로 무더운 날씨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천후 경기장을 보유한 순창군에서 진행된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지원과 대한체육회의 후원으로 꿈나무육성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는 100년 대계를 위하여 꿈나무 육성 3대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2억4,000여만원의 지원을 통하여 꿈나무선수 합동훈련, 체육영재훈련 그리고 용품지원을 통하여 비인기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효자종목이다.

/순창=이양원 기자